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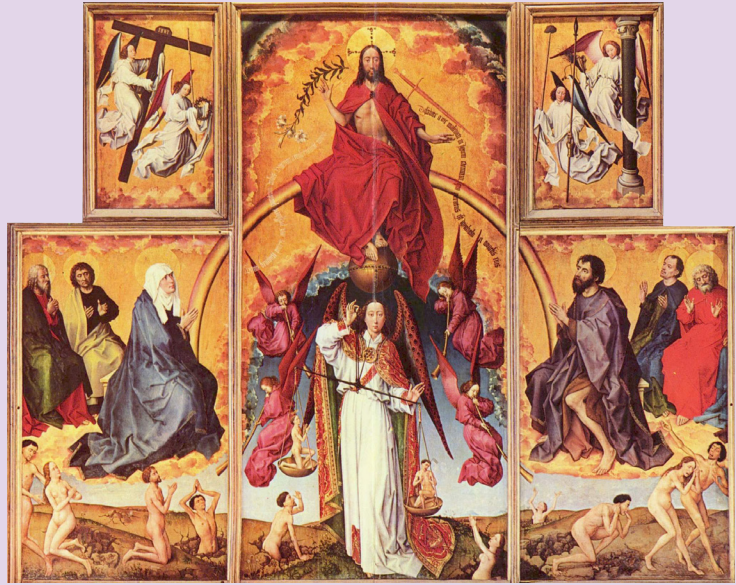
다해·제2300호

대림 제1주일

2024년 12월 1일

천주초

로히르 판 데르 베이던 <최후의 심판-부분>
1450년경, 패널에 오일, 오스퍼드 드 본, 프랑스



목 차

02 말씀의 향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03 평신도 단상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
니고 나를 위한 봉사다.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⁵

05 교구 소식
2024년 사제 서품식 안내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
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
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
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김병운 야고보 신부
샘밭 본당 주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대림 제1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 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들’ 사람들이 볼 것이다.” 참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뵈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살면서 예수님을 자주 외면했던 사람은 그분께서 오셨을 때, 숙제를 해 가지 못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맞추지 못하듯,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서 당신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몸을 세우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친절하게 그 방법도 알려 주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오시겠지’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자기 뜻을 따르는 영적으로 잠든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서 살아 숨 쉬고 계심을 느끼며 하느님 뜻을 따르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랑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된다고 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머리를 들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대림 시기를 살아갑시다.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더 자주, 더 깊이 기도하고,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봅시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작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을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모셔지시더라도 그분을 발견하고, 의심 없이 믿으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기쁨을 충만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봉사다.

티 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8절에서 13절에는 봉사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있다. 우리는 본당에서나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 다른 견해에 대한 포용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봉사의 기쁨보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때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면 마음이 뿌듯하여지고 기분이 좋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자원봉사(自願奉仕)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자’ ‘바랄 願’ ‘바들 奉’ ‘섬길 仕’ 이니, 곧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들고 섬김’ 이란 뜻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받드는’ 과 섬기는’ 이라는 말이다. 즉 봉사활동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은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발성,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보수성, 또 한 번이 아닌 계속되는 지속성과 공공을 위한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 신앙인은 베드로의 첫째 서간 4장 11절의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한다.”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봉사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의 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책임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즉, 봉사는 나 자신의 헌신적인 희생 정신으로 한다. 우리가 ‘나’ 를 버리고 헌신할 때 봉사는 이루어진다. 헌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지도 않는다. 봉사는 오로지 희생과 헌신이다. 그러면 봉사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봉사 단체 및 시설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봉사자의 자세를 소개하면,

1.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처음의 순수함을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다.
2.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한다.
4.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한다.
5.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6. 활동은 성실히 하며, 활동 시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킨다.
7.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8.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한다.
9.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베첼리오 티치아노 <성령 강림>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³⁵

성령의 상징과 선물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미사 중 성령칠은 카드를 하나씩 뽑습니다. 불이나 비둘기 모양의 카드를 하나하나 오리고 성령칠은 가운데 하나의 은사를 일일이 써넣으며 준비하던 기억도 나고, 학생 때는 공부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알고 ‘지혜’나 ‘지식’을 뽑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업체에서 대량으로 인쇄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칠은과 더불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도 같이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칠은 카드의 모양에서도 그렇고, 교회 미술 안에서도 성령은 불이나 비둘기 모양으로 주로 그려집니다.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 이신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세례 때의 비둘기,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불길 같은 혀의 모양,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의 바람과 같은 상징을 볼 수 있으며, 세례 때 부어지는 물이나 세례와 견진에서 인호가 새겨지는 기름부음,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불, 하느님의 등장이나 영광스러운 변모 때의 구름과 빛, 안수, 하느님의 손가락 등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94-701항). 다양한 상징들을 통하여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갖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며,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정화하여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말씀’ (성자)과 ‘영’ (성령)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02항). 창조에서 말씀과 숨결(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창세 2,7)은 모든 피조물의 기원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03항). 성경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늘 함께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활동에 함께하시며 세상을 ‘마지막 때’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731-732항).

성령칠은이나 성령의 열매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하느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먼저 사랑은 으뜸가는 선물로서 다른 모든 선물을 포함합니다. 이 사랑에서 죄의 용서가 나오며,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령칠은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사들입니다. 학생 때의 저처럼 세상의 지식, 머리가 좋아져 공부를 더 잘하는 뭐 이런 형태의 은사가 아니라 슬기(지혜), 통달(깨달음, 이해), 의견, 지식, 용기(굳셈), 효경, 경외심(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 은사는 하느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께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며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판별하게 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등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선물들을 통해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갈라 5,22-23)라고 하는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위 순서대로 3개씩 묶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들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300~320쪽, 691~747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024년 사제 서품식 안내

† 하나됨 · 평화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로 우리 교구는 부제 두 명을 사제로 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와 수품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이 예의 바른 한 인간으로 진실하고 검소하며 겸손하게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천주교 춘천교구 사제단 드림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주교좌 죽림동 예수성심 성당 | 주례 |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사 제 수 품 자



이 상 현 대건안드레아
첫미사
12. 11.(수) 15:00
교동 성당



박 관 옥 안토니오
첫미사
12. 10.(화) 19:30
애막골 성당

2024년 사제 서품 전 9일 기도 지향

- 1일(12/1·주일): 수품자와 춘천교구의 발전을 위해 성 요셉께 특별한 은혜를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 2일(12/2·월): 수품자와 춘천교구 사제단의 일치를 위해
- 3일(12/3·화): 수품자와 가족들을 위해
- 4일(12/4·수): 수품자와 성소자를 후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 5일(12/5·목): 수품자와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 6일(12/6·금): 수품자와 예비 신학생, 성소자를 위해
- 7일(12/7·토): 수품자가 자신이 받은 고귀한 성소에 충실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 8일(12/8·주일): 수품자의 성화를 위해
- 9일(12/9·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수품자를 위해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건축위원회

12. 5.(목)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간성 본당 사목 방문

12. 6.(금)~8.(주일)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2. 3.(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용영일·윤현식 신부

12. 7.(토) 암브로시오

이지철 신부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간 행사표는 큐알코드로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춘천교구 대림 특강

1강: 윤장호 시몬 신부

2강: 이지목 안셀모 신부



춘천교구 유튜브 채널 ▲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2. 10.(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말씀 봉사자 모임

12. 21.(토) 10~17시, 가톨릭회관

대상: 각 본당 말씀 봉사자 / 강사: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교회 안에서의 성경 이해)

신청: 12. 4.(수)까지, 본당 사무실

☎ 033-240-6020

재속프란치스코 춘천형제회 월례회

매 셋째주 (토) 13시, 말당회관 3층

☎ 010-8392-8972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레지아 월례회의

12. 1.(주일) 14시, 말당회관

제66차 사회복지법인 정기 이사회

12. 4.(수) 16시, 사회사목센터 대회의실

레지아 직, 소속 Co.Cu.부단장/서

기/회계 직책 교육

12. 7.(토) 10:30, 가톨릭회관

목주기도 100단 봉헌 및 감사 미사

12. 6.(금) 19시, 화현 이벽성지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12월 카나 혼인 강좌

12. 14.(토) 18:30, 입암 성당

12. 21.(토) 18:30,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2. 14.(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평신도 선교사 4분기 모임

12. 3.(화) 11시, 교구청 경당

성령새신 금요기도회

12. 6.(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100단 봉헌

미사: 19시,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성령새신봉사회 말씀과 치유 피정

12. 13.(금) 13:00~18:30, 스무쉴성당

주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강사: 정대영 모세 신부(광주교구)/한연흠 다니엘

신부(수원교구) /미사: 17시,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 010-2962-4051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2. 8.(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 033-258-9487, 010-2690-8790

2024년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5. 1. 15.부터 조회 가능)

1) 신청기한: 2024. 12. 31.(화)까지 (기한 이후 신청 및 변경 처리 절대 불가)

2) 간소화 서비스 포함 대상: 2024.1.1.~2024.12.31.까지 납부한 기부금

3)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제출: 2022년 11월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자 본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022년 11월 이전 동의서 제출자와 타고구 전입자, 새 영세자 등 동의서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자는 본당 사무실에서 서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납입한 당사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타인 명의(직계 존비속 등)로 변경(납부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월 1회, 살레시오회 관구(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3층)

0507-1306-1505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40세 미만 미혼여성)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검진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군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인 준 시 설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집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노체리안드리자
애병원 /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46
☎ 031-589-0301 F. 031-589-0344

홍천군노인요양원(방지거의집)직원채용

분야: 사회복지사 1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silverhoch@hanmail.net
☎ 033-432-8895 F. 033-435-8897

보금자리 입소 청소년 모집

입소자: 가정 돌봄이 어려운 남자 청소년
이용대상: 9~24세
보호기간: 3년 이내 중장기 보호(1년 연장 가능)
☎ 033-244-5118

강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마리아의집)

예기치 않은 임신/출산, 고민하지 마시고 1308에서 상담하세요. (혼인여부, 나이, 소득수준 관계없음/비밀상담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위기 임산부 / 24시간 전화상담 1308
☎ 033-263-1308 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강원

가톨릭춘천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복은 받는거고, 행복은 하는거래요~
금융의 힘으로 협동의 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더불어 저희 가톨릭춘천신협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033-255-6742
지점 033-262-6742

일 반 알 림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안소근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
언서 II: 12. 20.(금)~22.(주일) / 성경완독:
1. 2.(목)~10.(금), 2. 7.(금)~15.(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파정의집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피정(한라산눈꽃산행): 12. 30.~1. 2.
한라산산행포함: 1. 17.~19./1. 23.~25./2. 8.~10.
☎ 02-773-1463, 064-756-6009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마: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영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s.kr

청주 조정성령회관 금요철야

매 (금) 21시~(토) 3시, 조정성령회관
강사: 전국 유명강사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앞 19시 출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앞 19:20 출발
☎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성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1~2월 한라산산행 접수중)
연말연시특별피정: 12. 29.~1. 1.(한라산/일몰/일출)
한라산눈꽃산행: 1. 11.~13./1. 16.~18./1. 20.~22.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2025년 동반자 100만원 할인 이벤트
3. 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0일 (550만원)
3. 1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4. 22. 이탈리아(히년 전대사) 11일 (465만원)
5. 19. 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13일 (107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12. 16.(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카톡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 캠프

일시: 25. 1. 3.~5.(2박 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 17.(화) 10시~ / 회비: 15만원(접수확정 후 이체) / 방법: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선착순)
☎ 043-260-5076

2025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접수: 11. 11.(월)~25. 2. 14.(금)
☎ 02-745-8339 ci.catholic.ac.kr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
원/과달루페 성모님 10박 12일(페루 마추픽추 포함)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라파엘 성지순례 02-778-8565

(2. 12. 3대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2. 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3. 3. 터키, 그리스 11
일 초특가 385만원)(3. 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
만원)(3. 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705-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켄마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코다리조림)
대구목살, 생선 모듬
코다리, 가오리 조림(전문)
위치: 영금정로 20(동명동1-83)
☎ 637-5070, 010-3756-9380
조철성 베드로·이봉자 벨라데타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춘천즐거운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모집(장
기요양등급신청 무료 대행)/직장에 계신 시간
동안 안전하게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
☎ 010-3375-4977 김수정 레나

구름다리 주유소

후평동 금호 빌리지 옆
춘천 전지역 신속배달(인접지역도
가능) / 난방등유, 경유, 면세유
☎ 010-8945-1462
엄재철 미카엘·지은희 마리아골베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별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